

2024 데이터로 보는 국내 기부 규모 변화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장윤주|이영주|신성규|정민정

개요

- 본 자료에서 제공하는 지표는 '기부 인덱스'로서 국내 기부 범위와 규모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기부 문화와 트렌드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기부 정책 및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1. 기부 관련 데이터의 포괄적인 활용
 2.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 활용 : 국세통계, 기빙코리아, 기업 공시자료, 공익법인 국세청 공시 등
 3. 다각적 기부 규모 측정 : 개인, 기업, 공익법인
 4.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분석
 5. 시계열 분석을 통한 변화 추적

목 차

I. 국내 총 기부 현황

1. 국내 기부 범주와 규모
2. 국내 기부 총액 : 연도별 변화
3. 국내 기부 총액 : 물가상승률 적용
4. 국내 기부 총액 증감추이
5. GDP 대비 기부 총액

II. 개인기부

1. 개인 기부 참여율
2. 개인 평균 기부 금액
3. 기부 동기
4. 기부 분야
5. 기부하지 않는 이유
6. 유산기부

III. 기업기부

1. 기업 기부 총액
2. 기업 평균 기부 금액 :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3. 상위 10대, 100대 기업 기부금 비율

IV. 공익법인 모금액

1. 공익법인 현황
2. 공익법인 모금액
3. 공익법인 모금처

국제 비교 지수

1. 세계 기부환경 지수 Global Philanthropy Environment Index
2. 아시아 공익활동 환경평가 지수 Doing Good Index
3. 글로벌 필란트로피 트래커 Global Philanthropy Trac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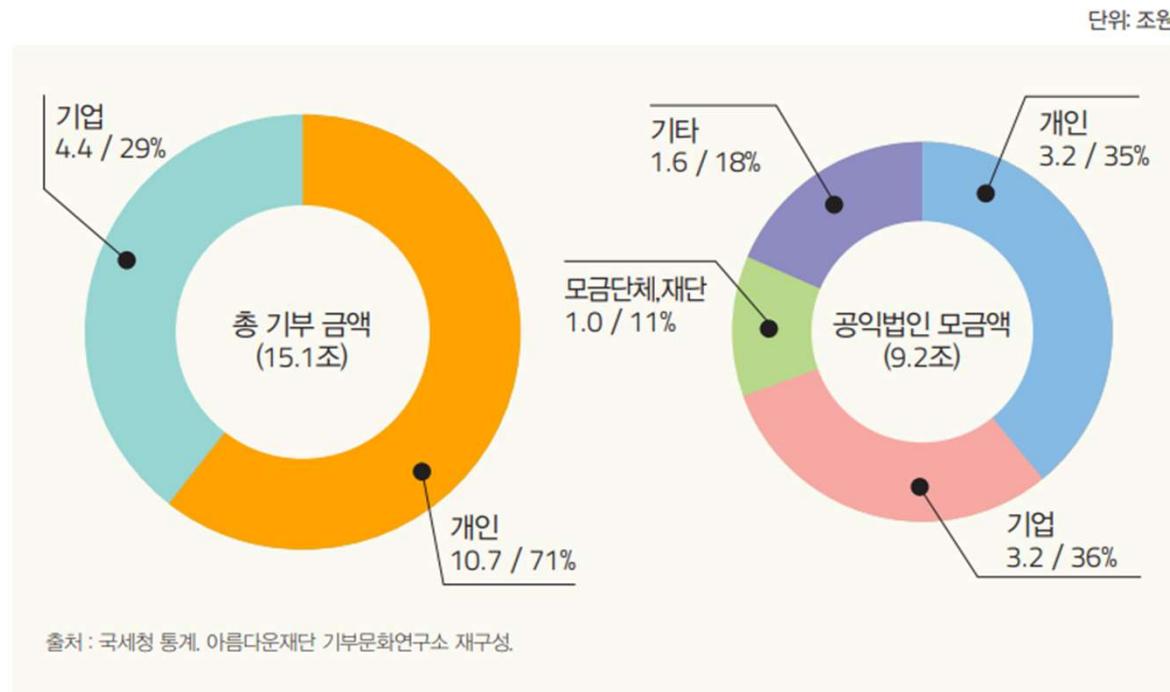
I. 국내 총 기부 현황



1. 국내 기부 범주와 규모

2022년 국내 기부 총액은 15.1조 원, 공익법인의 모금 총액은 9.2조 원

- 개인 기부가 10.7조 원(71%) 기업 기부 4.4조 원(29%)으로 개인 기부의 비중이 기업보다 높음
- 공익법인의 모금 총액은 9.2조 원, 모금처 비율은 기업(36%), 개인(35%), 기타(18%), 모금단체(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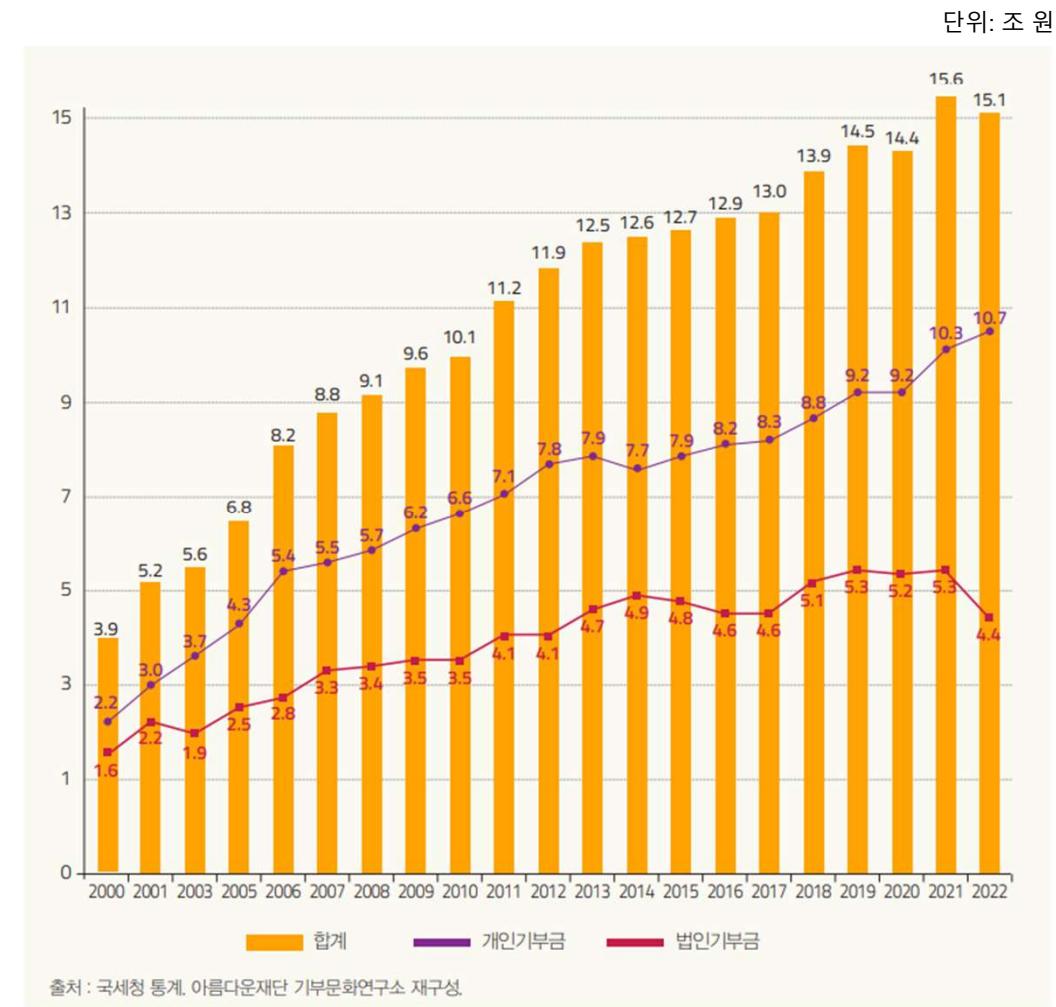




2. 국내 기부 총액 : 연도별 변화

기부 총액은 15.1조 원으로 2021년 15.6조 원보다 0.5조 원 감소

- 2000년대 초 급격한 상승기를 지나 꾸준한 증가 경향을 보이다 2014년부터 정체 또는 다소 하락
- 코로나 대유행 시기 2020년 처음 총액 하락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15.6조 원으로 최대 기부총액을 기록
- 개인과 기업 기부금 평균 비율은 개인 65%, 기업 35%였으나 2022년에는 개인 71%, 기업 29%로 기업 비중이 눈에 띄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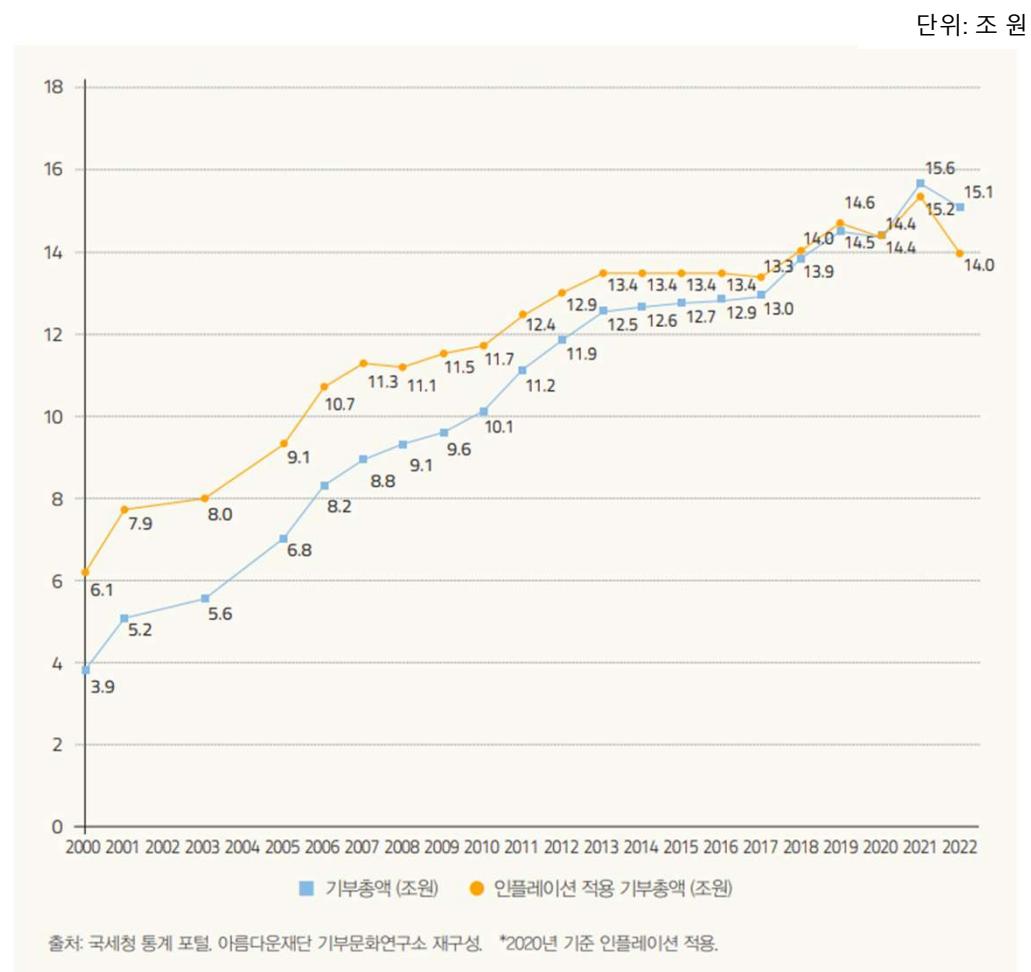




3. 국내 기부 총액 : 물가 상승률 적용

물가상승률 적용 시 2021년 대비 2022년 하락폭이 두드러짐

- 2021년 대비 2022년 명목 기부금은 15.6조 원에서 15.1조 원으로 2.9% 하락하였으나, 실질 기부금은 15.2조 원에서 14.0조 원으로 7.6%로 하락폭이 2000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팬데믹의 장기화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기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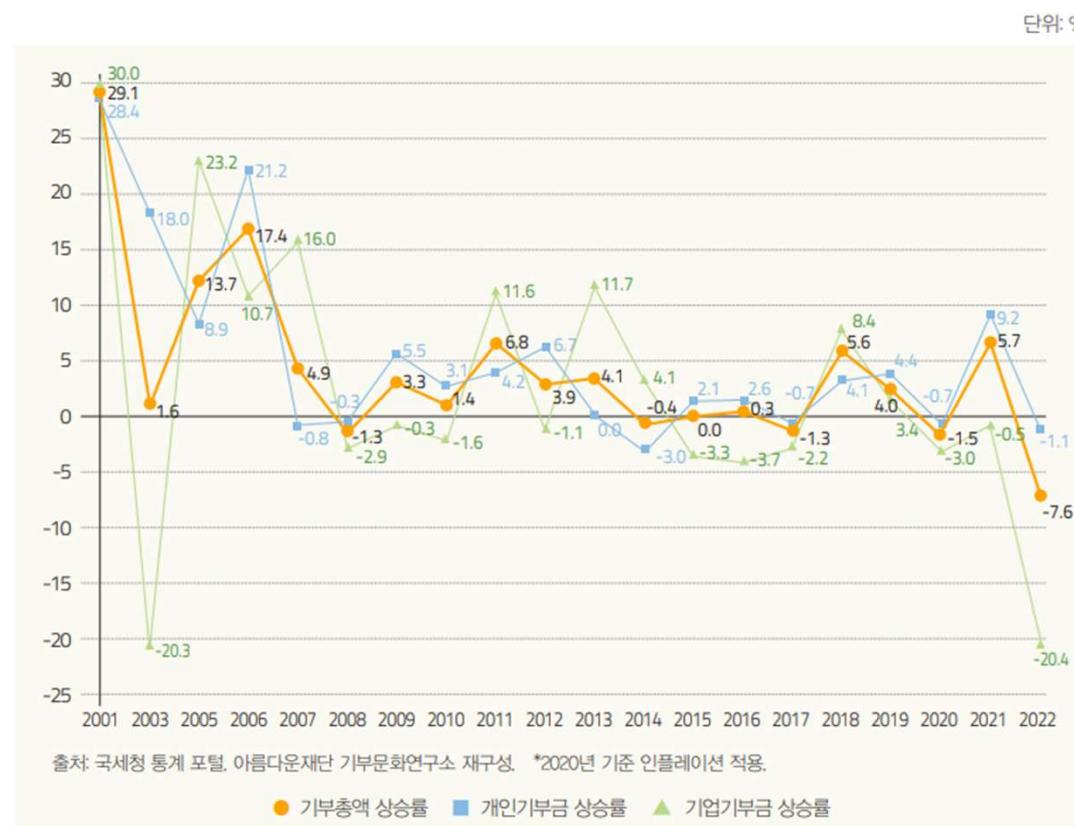




4. 국내 기부 총액 증감 추이

기부 총액은 변동성을 보이며 성장했는데 개인 기부금에 비해 기업 기부금의 변동 폭이 큼

- 기업 기부금은 2022년(-20.4%)로 큰 변동성을 보여 경제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
- 개인 기부금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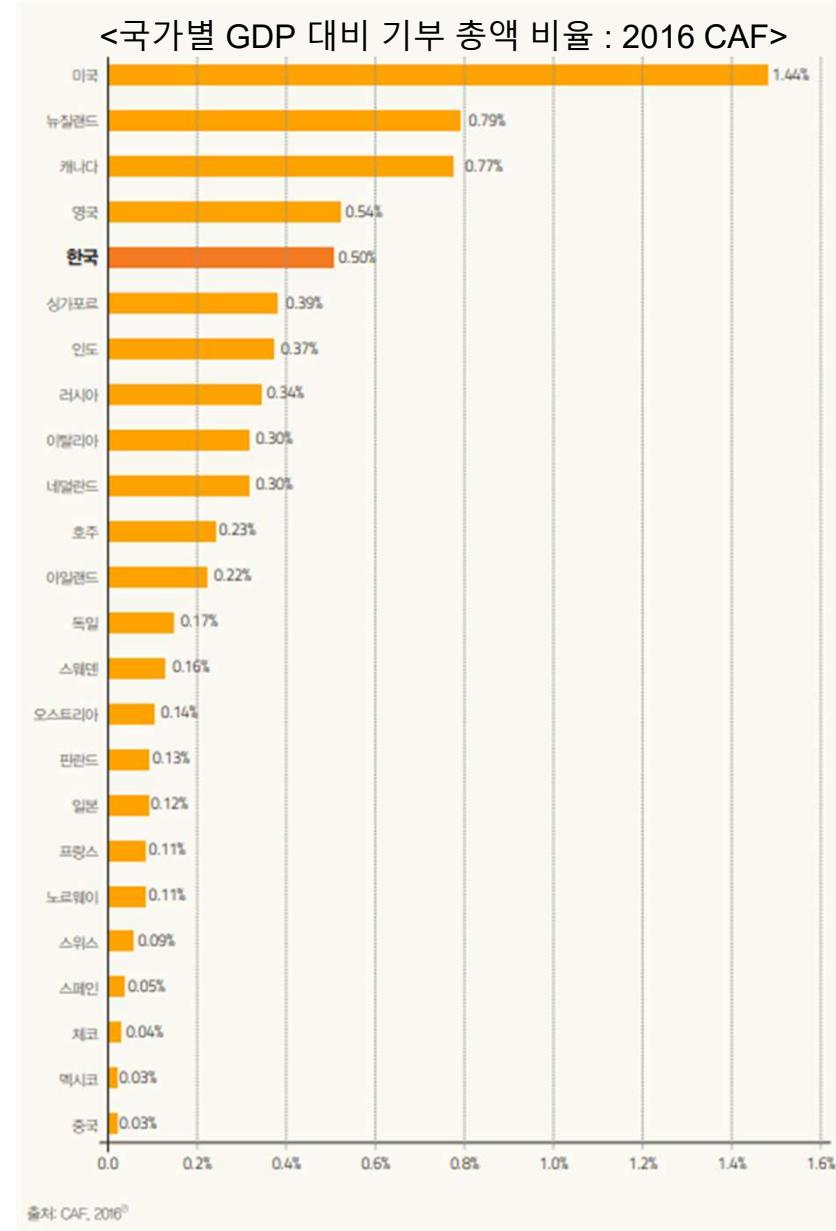




5. GDP 대비 기부 총액

2022년 GDP 대비 기부금 비율은 0.65%

- GDP 대비 기부금 비율은 경제 규모 대비 기부 문화 발전 정도를 파악, 비율을 통한 국제 비교가 가능
- 한국은 미국(2.0%)에 비해서는 낮지만,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중간 이상의 수준임.



II. 개인 기부



1. 개인 기부 참여율

- 지난 20년간 기부 참여율은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3년은 기부 참여율이 처음으로 50% 이하로 하락.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러한 하락세가 다소 반전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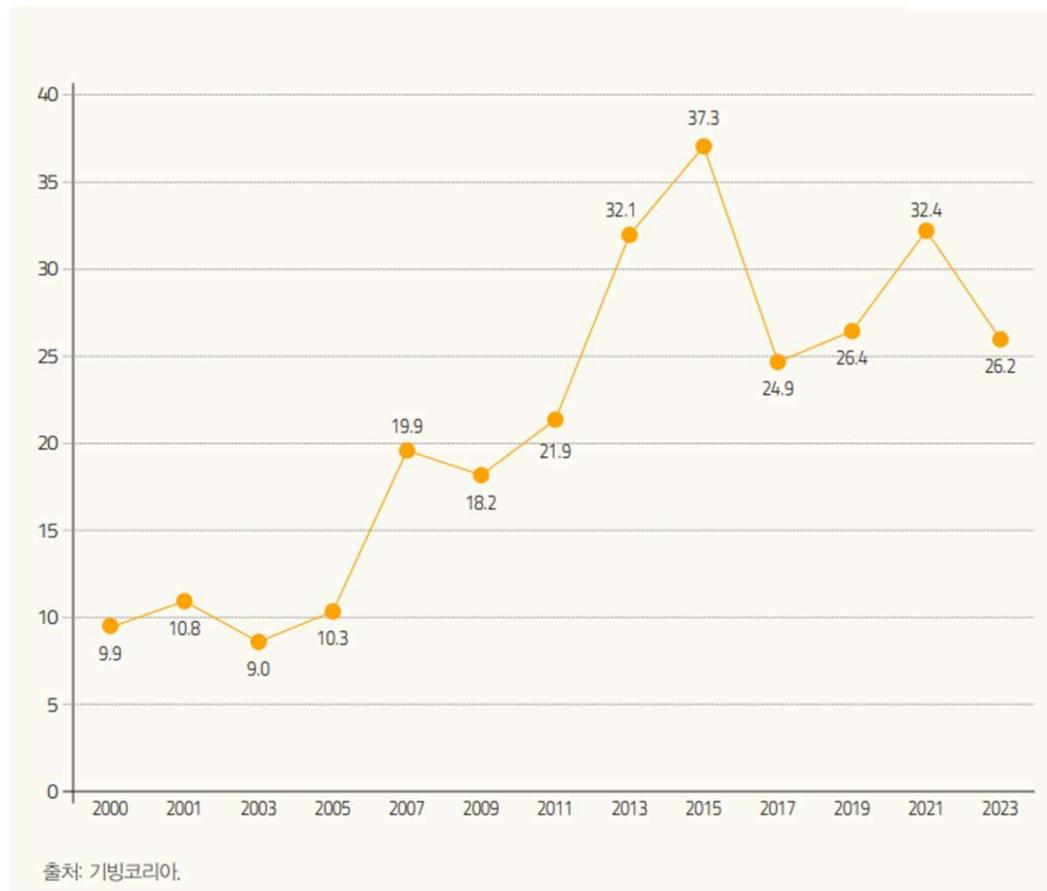




1. 개인 평균 기부 금액

- 기부 참여율 하락 추세와 달리 평균 기부 금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2021년은 기부 참여율과 평균 기부금 모두 상승, 2023년은 기부 참여율과 평균 기부 금액 모두 다소 하락.

단위: 만 원





3. 기부 동기

사회적 책임감 > 동정심 > 행복감 > 도움을 갚기 위해 > 세금혜택

- 장기적 추세 : 기부 동기의 순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 초기에는 동정심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점차 사회적 책임감이 중요한 동기로 부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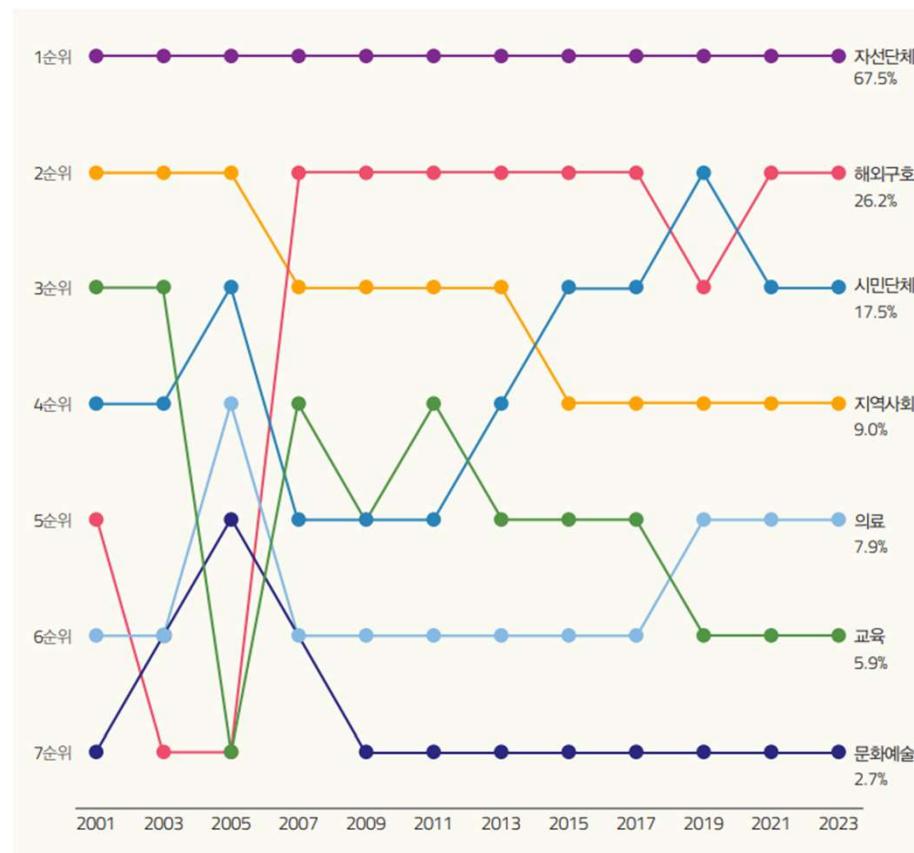




4. 기부 분야

자선단체 > 해외구호 > 시민단체 > 지역사회 > 의료 > 교육 > 문화예술

-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자선단체는 변함없이 1순위를 유지함. 이는 일반적 자선단체가 다양한 기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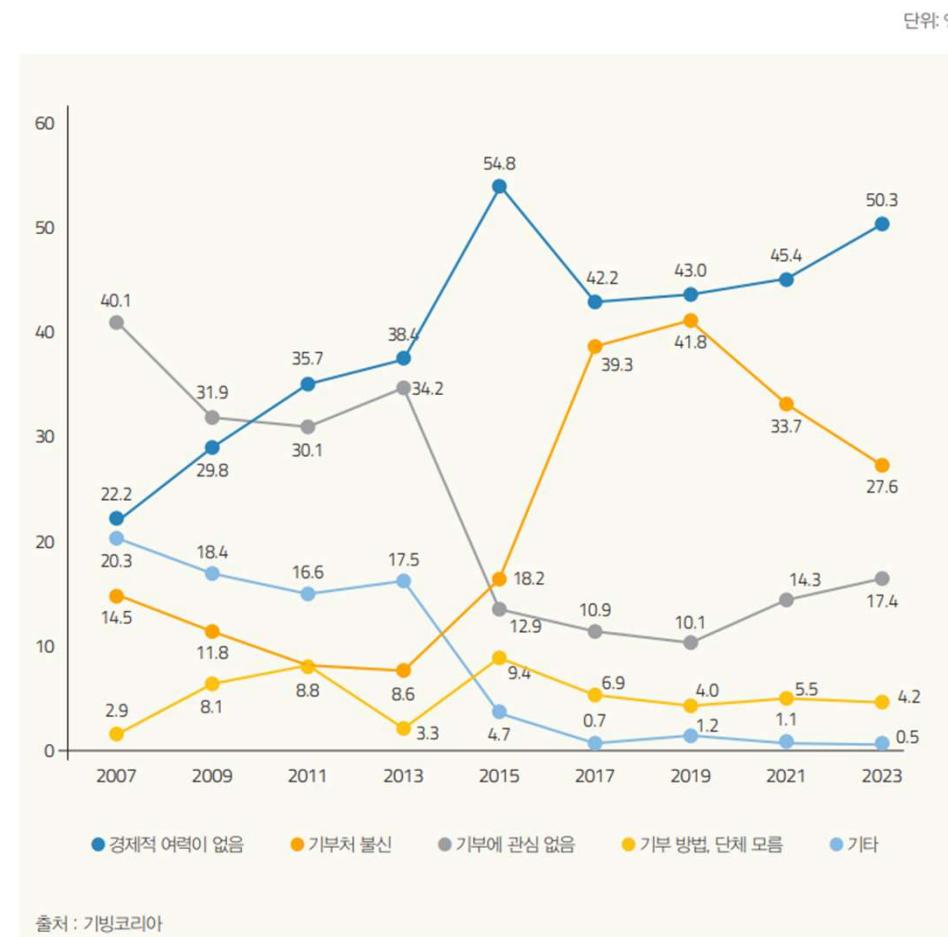




5. 기부하지 않는 이유

경제적 여력 없음 > 기부처 불신 > 기부에 관심 없음 > 기부 방법, 단체 모름

- 경제적 여력 부족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주요 원인으로 자리잡았으며 2015년 이후 40-50% 범위를 유지함.
- 기부처 불신은 2013년 8.6%에서 2019년 41.8%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이후 감소 추이.
- 기부에 대한 무관심은 2007년 40.1%에서 2019년 10.1%까지 꾸준히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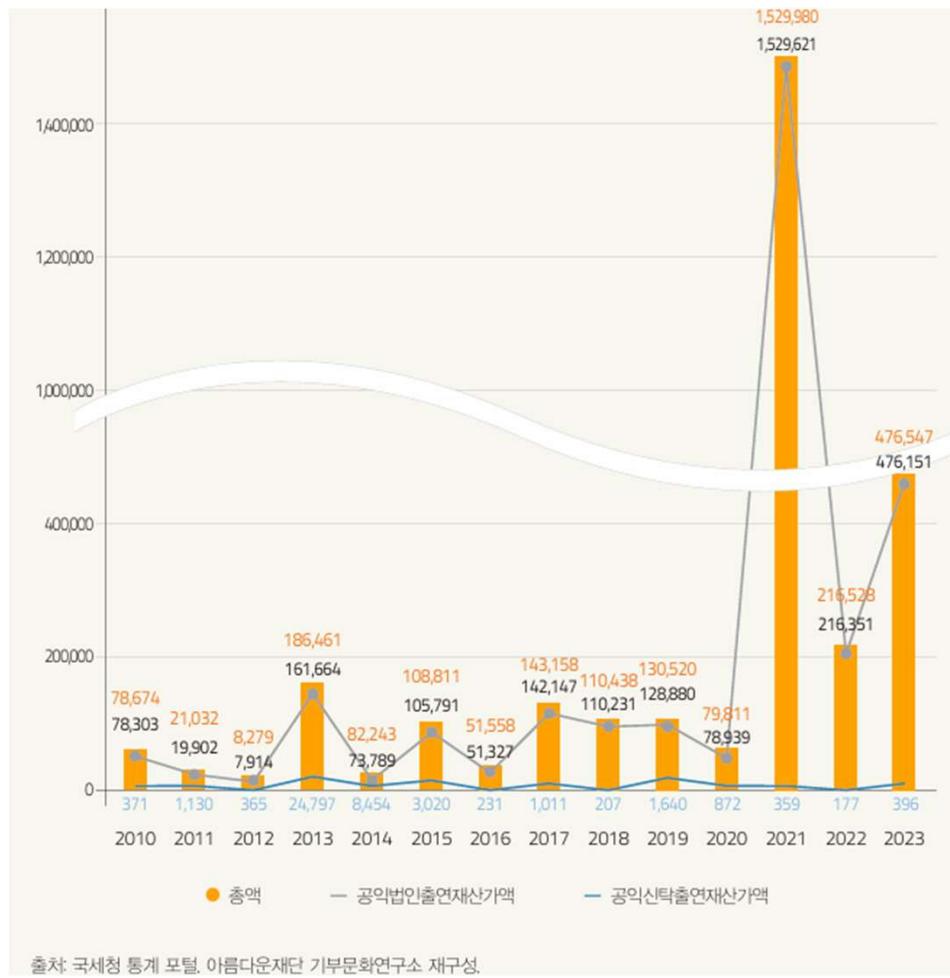




6. 유산기부

2023년 유산기부 총액은 4,766억 원으로 공익법인 기부액은 4,762억 원, 공익신탁 기부액은 4억 원

- 대체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나 연도별 편차가 매우 큼.
- 공익법인을 통한 유산기부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2012년 공익신탁법 제정 이후 공익신탁을 통한 유산기부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



III. 기업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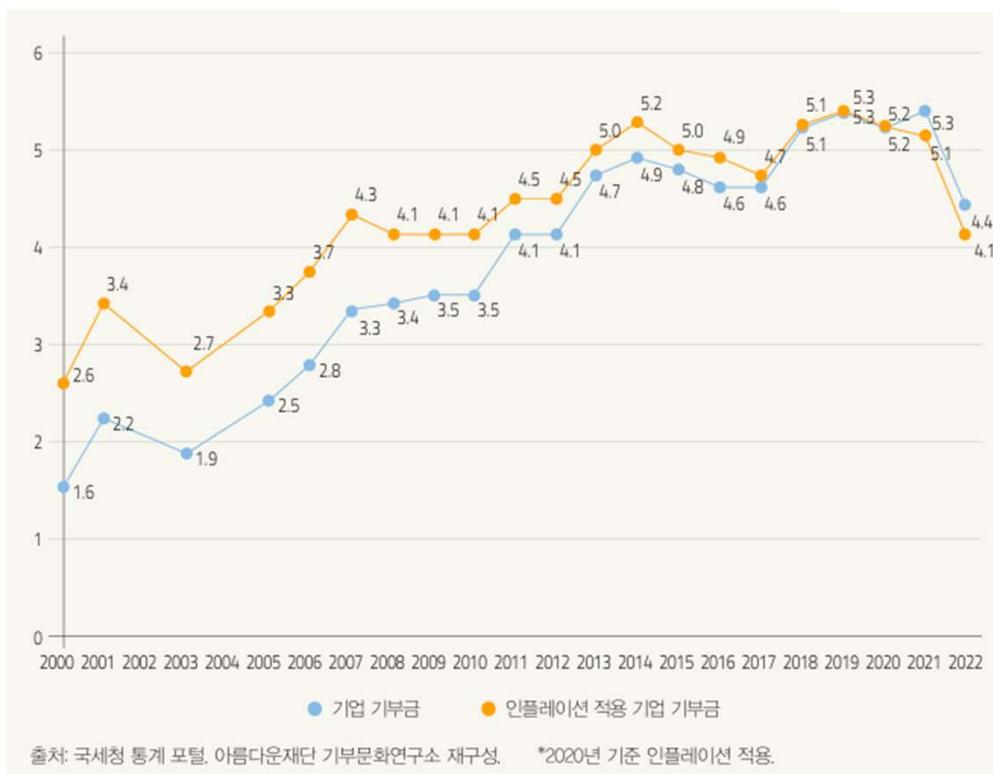


1. 기업 기부 총액

2022년 기업 기부 총액은 4.4조 원으로 측정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임.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2021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함. 2022년에는 19.8%의 급격한 하락을 보였는데,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 높은 인플레이션, 글로벌 경제 침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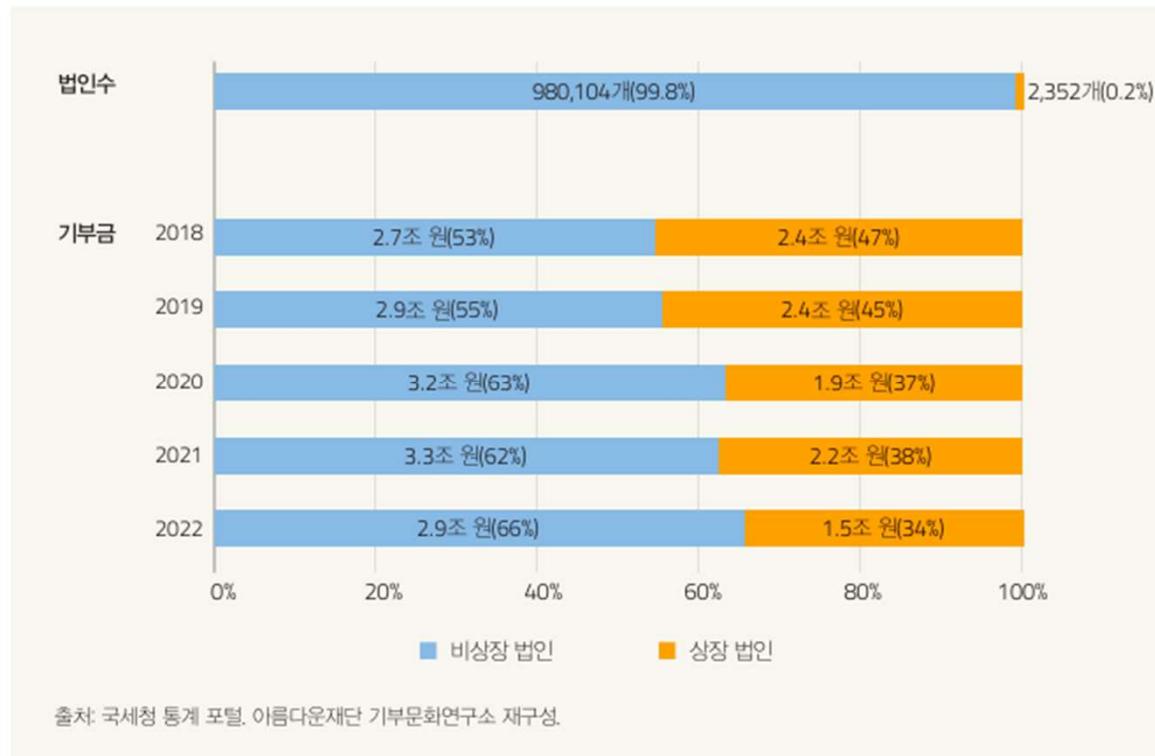




2. 기업 평균 기부 금액 :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상장법인 2,352개(0.2%)의 기부금액은 1.5조(34%), 비상장법인 980,104개(99.8%)의 기부금액은 2.9조(66%)

-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모두 코로나19기간 포함해 꾸준히 기업 수가 증가.
- 상장기업의 기부총액 비중은 2020년 37%로 큰 폭으로 감소한 후 2022년 34%를 기록.
- 평균 기부금액은 상장 기업은 2018년 11.7억 원에서 2020년 8.6억 원, 2022년에는 6.4억 원까지 감소. 비상장 기업은 2018년 370만 원, 2020년 380만 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2022년 300만 원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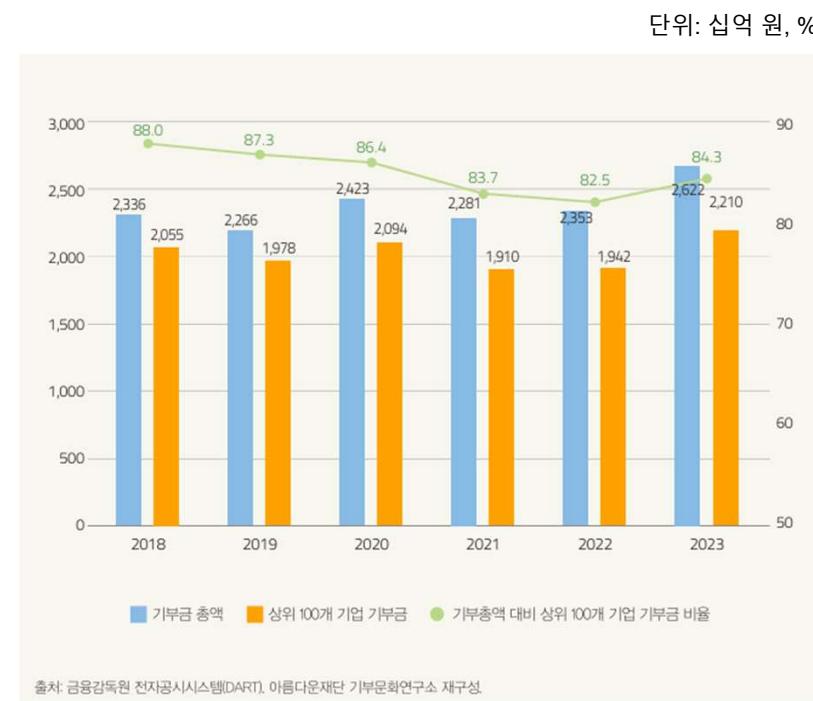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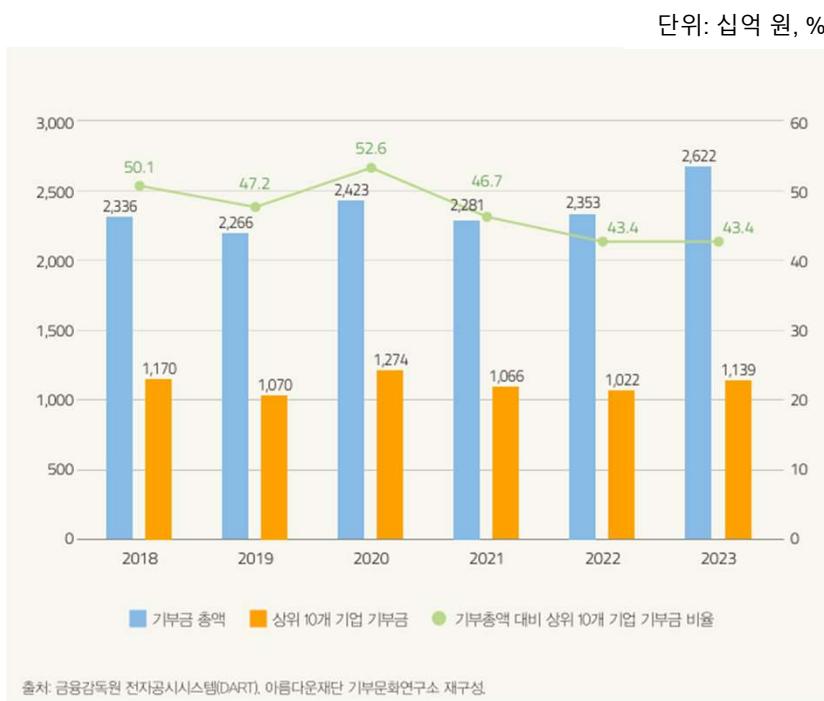




3. 상위 10대, 100대 기업기부금 비율

총 기부금액 상위 10개 기업의 총 기부금 대비 비중은 43.3%, 100개 기업은 84.3%

- 2023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2,548개 기업 중 기부금이 1월 이상인 기업은 1,787개로 70%의 기업이 기부 경험이 있음.
- 상위 10개 기업과 100개 기업의 기부금 비율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 이는 전반적으로 상위 기업들의 기부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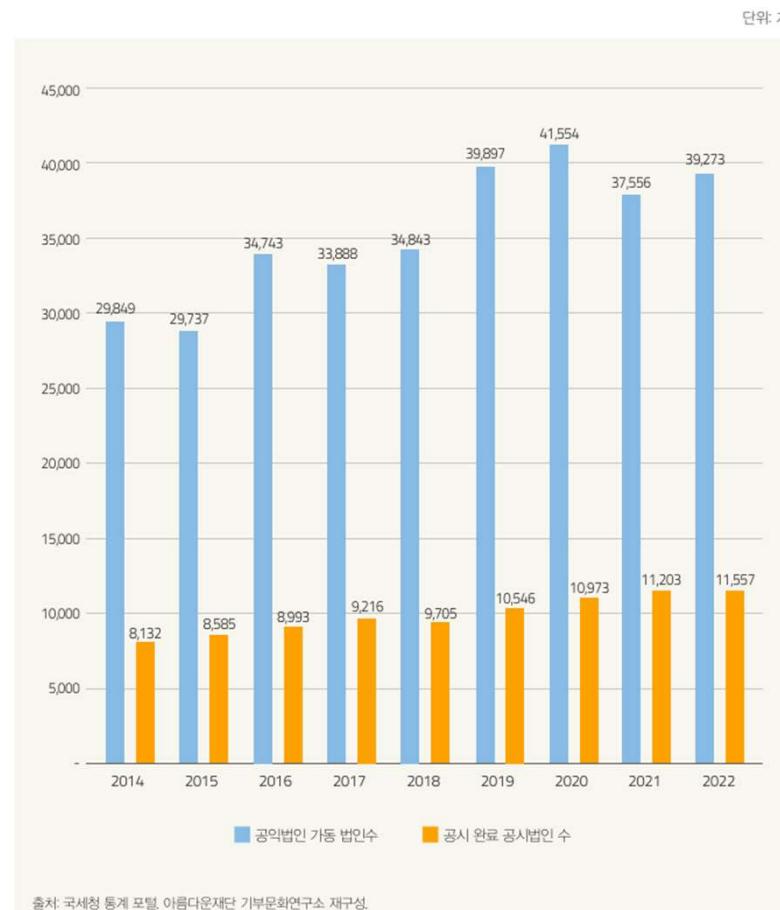
IV. 공익법인 모금액



1. 공익법인 현황

공익법인 수는 39,273개, 공시 완료 공익법인 수는 11,727개

- 2020년 41,554개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37,556개로 감소했으나 2022년에는 39,273개로 회복세를 보임.
-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공익법인 운영에 영향을 미쳤음과 동시에 공익활동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음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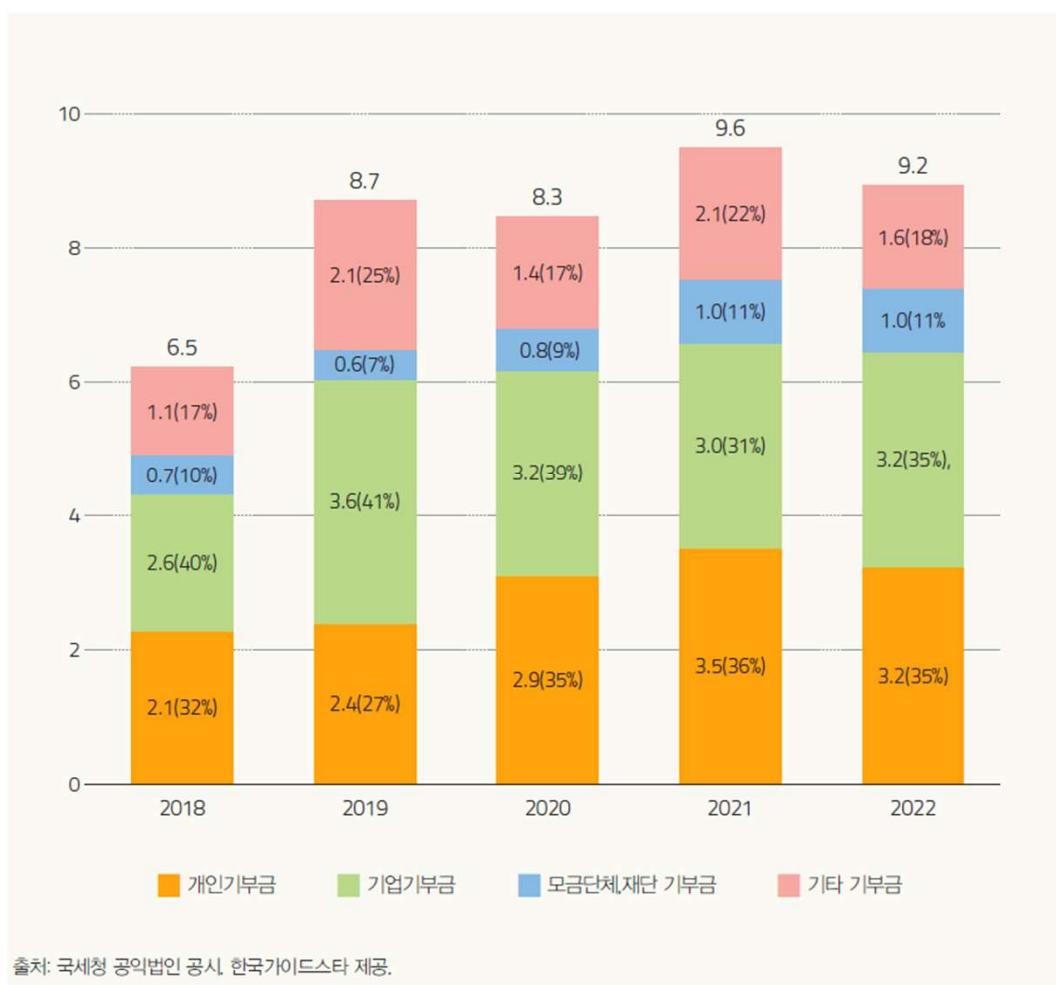


2. 공익법인 모금처

2022년 공익법인에 기부한 모금처별 기부금 비중은 기업(36%), 개인(35%), 기타(18%), 모금단체(11%)

단위: 조 원

- 코로나 팬데믹 기간(2020-2022)에 개인은 코로나 초기인 2020년 7.3%p 큰 증가폭을 보인 후 2021년 1.6%p 증가, 2022년 0.7%p 소폭 등락함. 기업 기부는 2021년 전년 대비 7.3%p 큰 폭으로 감소 후 2022년 3.5%p 증가함. 모금단체는 전년대비 2020년 2.7%p, 2021년 0.8%p, 2022년 0.5%p 소폭이지만 지속 증가 추이를 보임.
-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기업의 기부 비중이 높았지만 재난 시기에 개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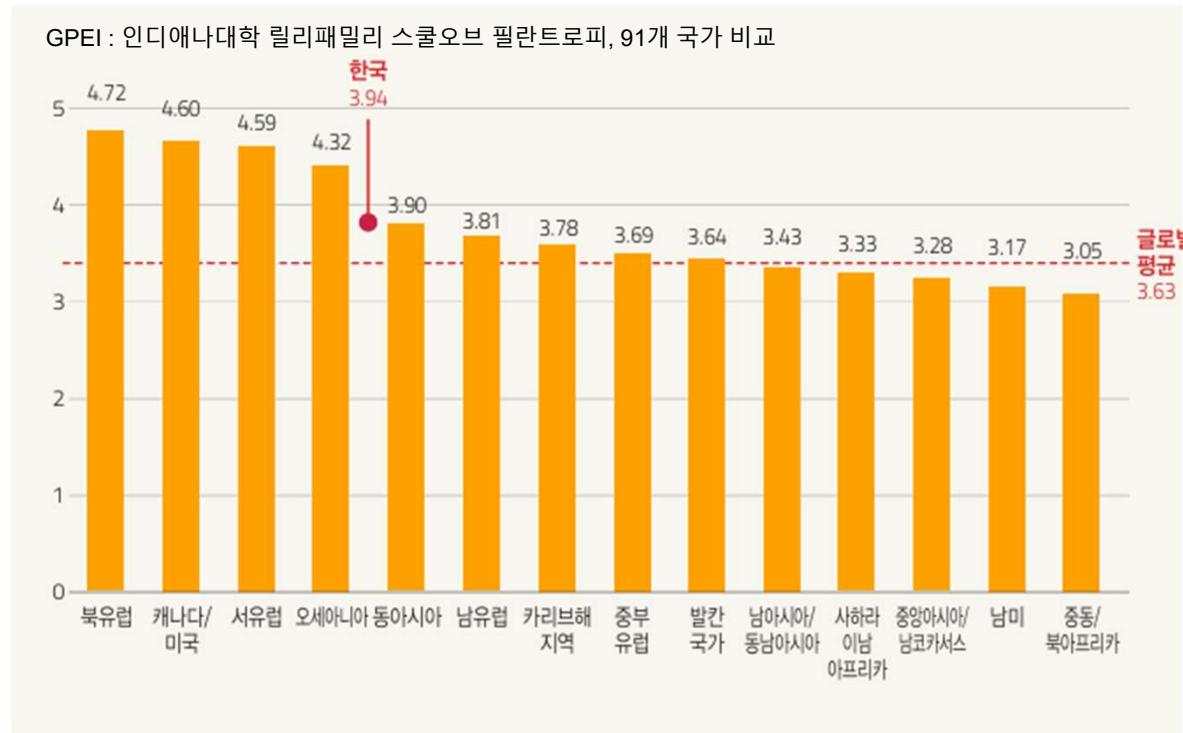


국제 비교 지수



1. 세계기부환경지수2022(Global Philanthropy Environment Index: GPEI)

글로벌 평균 3.63, 한국 3.94로 평균 이상이며 전반적으로 중/상위 그룹에 속함



6개의 기부환경 조사 분야

1. 자선단체 운영의 편의성 (Ease of operating a philanthropic organization) 중/하위 그룹
2. 기부관련 세제혜택 (Tax incentives on giving) 중/상위 그룹
3. 해외기부관련 규제 및 협력 (Cross-border philanthropic flows) 상위 그룹
4. 기부관련 정치 환경 (Political environment) 중위 그룹
5. 기부관련 경제 환경 (Economic environment) 중/하위 그룹
6. 기부관련 사회문화 환경 (Socio-cultural environment for philanthropy) 중위 그룹



2. 아시아 공익활동 환경평가 지수2024(Doing Good Index: DGI)

4개 그룹 중 Doing Better 그룹



DGI: 아시아 필란트로피 소사이어티 센터. 2022 17개국 2,183 사회공익단체 응답 140명 전문가 참여





3. 글로벌 필란트로피 트래커2023(Global Philanthropy Tracker: GPT)

해외기부 총액은 고소득 국가 32개 중 9위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민 총소득대비 해외기부 비율은 0.04%

GPT : 인디애나대학 릴리패밀리 스쿨 오브 필란트로피, 47개 국가 비교





© 2024 The Beautiful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